

# 금융위원회, 부산시와 금융·복지 복합지원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 2025년04월11일 14:00 | 최종수정 : 2025년04월11일 14:00

직접 방문해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 제공 서비스 시작  
부산시, 복지 지원 대상자 휴면예금 찾아주기 사업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역민이 현장에서 쉽게 금융·복지 복합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1일 부산광역시와 복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DB]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복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부산 시민들을 위해 군·구에 직접 방문해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부산에서 시작하고, 부산광역시에서는 복지 지원 대상자가 잠자고 있는 예금을 찾아 수 있도록 '휴면예금 찾아주기'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행정복지센터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기관 상호 간에 상대 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담 직원을 교육하는 '집중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부산시 맞춤형 복합지원 정책 홍보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복합지원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자립과 재기 지원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민과 현장에서 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이에 화답하며 "부산에서 모범적으로 금융·복지 복합지원이 잘 이루어져 지역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 마련·집행되도록 노력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